

불자 세상보기



허남길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대구의 한 어린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먼 죽음을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으로 인해 세밀 내내 우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얼마나 참기 어려웠으면 자기가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하나뿐인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 뛰어내리기까지 얼마나 무섭고 또 망설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한 지상을 향해 차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긴 것은 왕따와 이어지는 폭행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었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준 최후의 몸짓이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주변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최근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30여만 명의 초·중·고생들이 이른바 왕따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운데서도 중학생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은 대학입시와 같은 뚜렷한 학습목표가 없는데다 삶의 진로마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지극히 불안정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은 급격한 성장기의 불안감을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 사회적 규범의식

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래문화의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게 되는 시기이기도하다. 그래서 한 친구가 어떤 아이를 미워하거나 따돌리면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따라 함께 못살게 구는 '왕따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한 따돌림의 범위를 넘어 심각한 폭력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까지 몰고 가는 것이 요즘 중·고생들의 죄의식 없는 교실문화이다.

대구에서 자살한 중학생의 경우 폭행과 금품갈취는 말할 것도 없고 물고문에도 전 기졸로 개목거리를 만들어 끌고 다니면서 모멸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그 순진무구한 열네 살 나이의 꽃다운 죽음에 대해 한국사회가 계속 '방관자적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우리 모두는 간접적 살인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어느 왕따 피해학생의 표현대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가 있을 뿐이라면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 '침묵하는 다수' 속에는 주변의 동

료학생들뿐만 아니라 일선교사, 가해 및 피해학생의 학부모, 그 외의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윤리공동체적의 결여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사회의 암울한 자화상이자 동시에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 지도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비록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와 학부모 및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의 현상목격자에 해당하는 일선 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교육자적인 관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요하면 전문상담교사의 숫자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도가 지나친 가해학생들을 폭력현장에서 과감하게 격리시키는 행정적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진년 새해에는 잘 못이나 그릇됨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의 '파사헌정(破邪顯正)'이란 말을 듣기보다 범정 스님의 말씀대로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소박한 희망을 공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社說

전사법 개정엔 큰 자율 점검 따라야

한국불교의 발목을 움죄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이 구랍 29일 또 한번 개정됐다. 이번 전사법 개정은 그간의 개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재산관리인 임명, 재산목록 비치 등 100년 동안 국가가 불교계를 관리·통제하는 근거가 돼 왔던 독소조항들이 철폐됐다. 또, 전 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불교계 전체가 크게 만족해도 좋을만한 성과가 분명하다.

한국의 불교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이 구랍 29일 또 한번 개정됐다. 이번 전사법 개정은 그간의 개정과는 확연히 다르다. 재산관리인 임명, 재산목록 비치 등 100년 동안 국가가 불교계를 관리·통제하는 근거가 돼 왔던 독소조항들이 철폐됐다. 또, 전 통사찰 보존·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불교계 전체가 크게 만족해도 좋을만한 성과가 분명하다.

스님 장기기증 증가와 5대 결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반짝 상승 후 다시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받지 못해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11년 140명의 스님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 전년 67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장기기증 서약을 한 스님이 2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새로 편찬된 <선원정규>의 실천에 따른 것이라 하니 앞으로는 "장기기증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사랑의

실천 행위다. 수행자는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장기기증을 실천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자성과 쇠신의 5대결사(생명·평화·문화·나눔·수행)이다. 결사 실천의 한 방편으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등 중앙교역직 스님들이 장기기증 서약에 동참했다. 고무적인 가운데 출·재가불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소식도 들린다. 카톨릭은 2009년 2월 김수환 추기경 선종을 계기로 장기기증 운동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조계종의 자성과 쇠신의 5대결사가 2000만 불자 각각의 자비심을 일깨워 더 많은 장기기증 동참을 이끌어 내길 기원한다.

사부대중 칼럼



도각 스님 태고종 중정계경실장 자연치유학박사

한 해가 지고 또 새 일 년이 시작되면 송구영신(送舊迎新)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근거 약한 중생인자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각자가 굳게 먹은 마음이 얼마 가지 못해 곧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멈추고 만다. 왜 3일일까? 이 말의 뜻에는 처음 시작해 3일이 고비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3이라는 숫자는 매우 안정감이 있는 반면에 그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그림자 즉 번뇌망상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의 수행 경험으로 단식이나 철야정진기도를 할 때도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3일이 지나면 배고픔도 차츰 감소되며 졸음도 한 고비를 넘기게 됐던 기억이 난다. 불교에서도 숫자 3에 대한 내용이 많다. 진리를 삼법인(諸行無常, 諸法無我, 涅槃寂靜)으로 말하고, 신앙대상을 삼보(佛·法·僧)로 정한 것이나, 삼독(貪·瞋·癡)을 경계하라는 말씀과 세계관에서 중생이 생사유전(生死流轉)한다는 3단계의 미망(迷妄)의 세계를 삼계(欲·色·無色界)라고 한 것이나,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전승된 회심귀일사상

작심삼일 두려워 말기를

《會三歸一思想》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3일의 한계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작동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연은 또 무엇 때문인가? 마음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작심삼일로 끝내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 마음의 본체를 알면 하나의 희망이 보인다. 마음을 일원상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신심명>에서는 마음을 일컬어 "하공 같이 뚜렷해 모자랄 것도 없고, 남을 것도 없다"라고 했다. <금강경>에는 "지나날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고 이르렀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의 자성(自性)은 공적(空寂)해 대립도 없고 소멸한 일도 없다. 그것은 처음인 것도 아니고, 가운데나 뒤인 것도 아니며, 삼세(三世)를 초월해 그 모습이 허공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마음의 본체에는 상(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승사유법전소문경(勝思惟梵天所問經)>에는 "마음의 본성은 청정해 더러움에 물드는 일이 없다. 마치 하늘에 연기와 먼지나 구름 그리고 안개 따위가 뒤덮여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

늘의 본성이 더럽혀지는 일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마음의 본성 또한 청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기만 한 하늘이나 물속에 비친 달과 같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무엇 때문에 더럽혀지는가? 그것은 마음에는 심식(心識)과 연기(緣起)가 있어 알음알이를 내고 연연에 의한 윤회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윤회의 바퀴를 완전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이 바로 마음수행이며, 마음수행은 호흡을 통한 정진집중으로 식(前五識, 意識, 末那識, 阿賴耶識)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연기의 굴레를 벗어나 마음의 본성, 즉 일심(本性)으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오늘도 우리는 내일이면 바꿀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우고, 지키지 못할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그마한 날개 짓이며,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금년에 또 한 번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원한다.

마음의 본체를 알면 희망 보며 마음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호흡 통한 정진집중 수행으로 청정한 마음 되찾을 수 있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구지사: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전북지사: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영주지사: (054)634-3429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현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전법사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전법사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생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생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풍기 정품 홍삼액기스.인삼 직접 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100mix60포(할당분) 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레드파워) 홍삼편,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환, 홍삼먹은사과즙 홍삼의 사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72시간 이상을숙성발효시켜 만든 홍삼액기스입니다. ■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삼정 TEL 054)636-2174 / 016-815-2174 해운정사 주지 청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